

장애인 맞춤 신발 '아름다운 적자'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 '아름다운 남세자상'

가능성 맞춤신발 전문회사인 문현동 (주)선형상사의 백호정 대표가 제52회 남세자의 날을 맞아 '2018 아름다운 남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남세자상은 성실한 세금 납부와 함께 기부·봉사 등 나눔문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개인에게 수여한다.



1989년 선형상사를 설립한 백 대표는 줄곧 장애인을 위한 맞춤신발 제작에만 몰두했다.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신발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세계 최초로 3D 발형상 기술을 접목해 장애인을 위한 맞춤신발을 만들고 있다. 녀너지 않은 회사 재정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을 위해 매년 이웃 돕기성금을 내고 2014년에는 2000만원 상당의 장애인 신발을 부산시에 기증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신을 수 있는 자체 브랜드 '도래미구두'가 2016년 부산신발 명품화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30년 간 회사 200배 성장 기업이윤 지역사회 환원

중로전기 박동천 대표 모범납세 대통령표창

대연동 중로전기(주) 박동천 대표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84년 전기공사를 전문업체로 설립된 중로전기는 34년간 모범적인 회사경영으로 100여 명의 상용직과 500여 명의 일용직사원이 일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부산 1위 등 회사 규모가 설립 이래 200배나 불어났다.



회사 발전과 함께 박 대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박 대표는 끊임없는 사회기부를 통해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 8억 원 가까이 큰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박 대표는 장학 기금으로 2000만원 출연을 약속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박종규 신입회장 취임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제12대 박종규 (원지카크리닉 대표) 신입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9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구·동 협의회 위원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대회 및 협의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한편 남구청은 2014년부터 4년간 협회를 이끈 윤병일 전 회장에게 이날 공로패를 전달했다.



주민자치남구협의회 김태수 신입회장 취임

주민자치 남구협의회 김태수 (동진유통 대표) 신입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2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협의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3월 정례회를 겸한 이 자리에서 정갑성 전 협의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손동화 신입회장 취임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손동화 ((주)제일항공여행사 대표이사) 신입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4일 수영구 화북문화페스티벌에서 재향군인 200여 명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UN평화문화특구 협의회 4월 소식

Table with columns: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할료, 문의처. Lists various cultural events and exhibitions in the UN Peace Culture Special District for April.

문현삼성아파트 부녀회 10년간 5000만원 기부

한 아파트부녀회가 물품을 팔아 모은 수익금으로 기부한 성금이 10년간 5000만원이나 돼 화제다. 문현삼성아파트부녀회(부녀회장 김은숙)는 지난 6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떡국, 블루베리 등을 판매해 모은 329만원의 판매 수익금과 함께 사전을 맞춤하는 백인장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스웨덴 군인이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명절 떡국 등을 판매해 아파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쌀, 라면, 저소득이동세대 급식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왔고 그 액수가 최근까지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현3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00년 준공돼 모두 916세대가 살고 있다.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된 이 아파트는 최근까지 가을철이면 입주민의 화합을 위해 '한마음 축제'를 사흘씩 성대하게 개최해 다른 아

파트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김은숙 부녀회장은 "올해는 특히 수익금이 늘어나 남구 전체 아동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웨덴. 한국 모두 서전병원 까맣게 망각 안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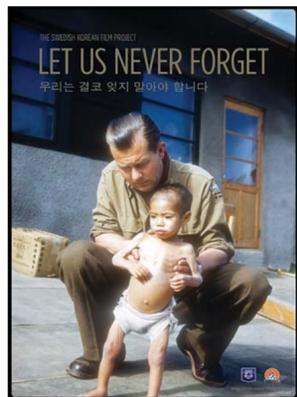
▶ 1면 서전병원 기사 계속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매우 이영애가 판점에서 발생한 남북간 총격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통분사주하는 중립국 소속의 한국계 스위스군 장교로 등장한다. 이때 이영애와 함께 사건을 추적하는 백인장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스웨덴 군인이었다. 1953년 남북정전협정으로 판문점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NNSC·중감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중감위는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단이 각각 5명씩 파견돼 DMZ 사이의 남북 총돌을 막고 감독, 감시, 사찰,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큐 'LET US NEVER FORGET' 기획사 제작 이유 밝혀 스웨덴, 남북 모두와 우호적...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부상

문점 중감위 스웨덴 대표로 근무한 2성장군 출신이다. 3년간의 판문점 근무를 마치고 전역해 현재 스웨덴군영화재단 이사장과 한국스웨덴협회장을 맡고 있다. 프리스크 씨는 지난해 9월 남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웨덴아전병원은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도적 사업인데도 현재 한국과 스웨덴 국민 모두에게 까맣게 잊혀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다큐멘타리를 만들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스웨덴병원은 적십자정신에 입각해 유엔군 외에도 북한군과 중공군 부상자들도 조건 없이 치료했다. 파견 의료진 대부분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군비·계급이 없었고 미군 군복을 입고 근무했다.

한편 오는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스웨덴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73년 스웨덴에 북한대사관이 개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스웨덴 역시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영 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얼마 전 숄진 미국 대학생 오토 윌버의 석방에 스웨덴이 많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날 중공 북한 이용도 외무상이 스웨덴을 직접 방문해 대북제재 등의 외교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렇듯 스웨덴은 스위스와 함께 영세중립국이지만 국제정세에 수수방관하는 스위스와 달리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는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오는 9월 한국과 스웨덴에 방영될 'LET US NEVER FORGET' 포스터.

부산남구문화원, 제40기 문화강좌 안내

Table with columns: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접수기간, 접수방법. Lists the 40th cultural courses offered by the South District Cultural Center.

Advertisement for 'How to use a washing machine?'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munity center.

Advertisement for '2018 2nd South District Lifelong Learning Center Course Registration' listing various courses like 'Smartphone' and 'Washing Machine' with details on dat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Guam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 Volunteer Operation Legal Person Recruitment' with details on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s.